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5월 22일 수요일(주간) 제 370 호

법석 초대 **도문 스님** 장수 죽림정사 조실

"악을 그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여 선을 닦아 깨달음을 이루라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내 마음 가는 곳에 부처님이 계시니 일과 이치에 따라서 불교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법이고, 깨끗하면 부처입니다. 교는 부처님 말씀이고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지요."

☞ 자세한 내용은 18 · 19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연등행사를 국민축제로

12일 서울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는 말 그대로 축제분위기가 한껏 묻어났다. 연도에는 제등행렬을 보려는 시민들로 넘쳐났고, 불교문화에 매료된 외국인들이 연신 터트려대는 카메라 플래시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갖가지 화려하고 새로운 장엄물들과 춤추는 행렬, 경쾌한 음악과 레이저 조명. 이날 행사는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유명 축제와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올 봉축행사는 예년과는 달리 몇 가지 특징이 두드러졌다. 우선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은 학생 불자들이 2002개의 축구공등을 들고 행진을 벌이는 등 월드컵과 연계한 아이디어들이 많았다. 또 탈춤, 국악,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가 제등행렬 곳곳에서 흥겹게 펼쳐진 것도, 연등축제에 외국인들이 대거 참여해 마치 외국에 온 듯한 느낌을 갖게 한 것도 예년과는 다른 풍경이었다.

더욱이 올 연등축제에 참여한 인원이 예년에 비해 5만여명이 늘어난 15만명이나 됐고, 제등행렬을 보기 위해 연도로 나온 시민 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은, 연등축제가 시민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방에서도 시민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14일 열린 대전의 제등행렬에서는 행렬을 뒤따르는 시민들이 지난해에 비해 훨씬 늘었고 14일과 15일에 열린 춘천과 전남 광주의 제등행렬도 웅장한 장엄물로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12일 열린 부산의 연등축제에서는 합창제, 연극, 봉사활동 등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봉축행사를 연출해냈다. 이밖에도 마산 · 창원, 청주, 원주, 제주 등 각 지역의 연등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불교가 우리 역사의 근간이자 불교문화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맞닿아 있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문화축제가 아직 없다는 점에서, 연등축제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국민축제이자 문화축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만 장엄물과 갖가지 이벤트가 점점 대형화됨에 따라 이를 마련하기 벅차하는 규모 작은 사찰들이 (참여에)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했으면 한다.

한명우(취재1부 차장)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사찰 수련

1. 주말이나 휴가 때 사찰에서 운영하는 수련 프로그램에 참가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2.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①참선 ②절하기 ③교리강좌 ④예불 등 의식
   ⑤체조나 선무도 ⑥다도, 문화재 알기 ⑦기타

설문 참여: 5월 23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71호 11면에 싣습니다.

◇2546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법요식이 19일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2만여 사암에서 봉행돼 부처님께서 중생을 제도하기위해 사바세계에 오신 참뜻을 되새겼다. 1만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조계사 봉축법요식에서 조계종 원로회의장 도원스님이 총정 법전스님의 법어를 대독하는 모습. 사진=고영배 기자

"깨달음 · 상생의 삶을"

19일 전국 2만여 사암서 봉축 법요식

불기 2546년 봉축 법요식이 19일 서울 조계사와 봉원사, 관문사, 탑주 심인당을 비롯 전국의 2만여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 법요식은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부처님 오신날을 알리는 28번의 타종을 시작으로 원로회의 의장 도원스님과 총무원장 정대스님이 전통 관불의식을 봉행한데 이어 헌화, 봉축사, 김대중 대통령 봉축 메시지 낭독, 종정 법전스님 법어, 발원문 봉독 등의 순으로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봉축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것은 우리 가슴 속에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서원과 부처님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며 "우리 모두가 무지와 탐욕을 여의고 깨달음과 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발원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종회 의장 지하스님은 통일을 염망하는 남북한 불교도의 염원을 담은 남북 공동 발원문을 봉독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나라 · 민족발전 버팀목 김대통령 봉축 메시지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254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메시지를 발표했다. 김대통령은 메시지를 통해 "차비와 사랑의 정신을 일깨워 주신 부처님의 드높은 공덕을 기리고자 한다"며 "불교계가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월드컵 계기 불교세계화 '성큼'

봉축 연등축제 · 템플 스테이 등 외국인 관심 고조

'사찰체험' 지속 등 국제포교 적극 추진

30일부터 개막되는 2002 한일 월드컵 개임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연등축제에 대거 참석하는 등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템플 스테이 사업을 상설화하고, 조계종이 새롭게 영문 표기법을 확정하는 등 국제포교 활성화에 나섰다.

전국 31개 사찰들은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외국인들에게 산문을 열고 예불, 참선, 발우공양, 인경, 다도 체험 등 한국불교를 체험케하는 템플 스테이(Temple Stay) 사업에 들어갔다. 조계종(총무원장 정대)은 "아시안게임(9월29일~10월14일)이 있는 가을에도 템플 스테이 추진이 어려울 것이 없다"면서 "31개 사찰의 노하우를 살린 템플 스테이의 상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외국인 포교 및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대책과 관련, 템플 스테이 상설화를 추진키로 하고 '2003년도 템플 스테이 계획안'을 수립, 사찰 개보수 비용(올해 10억원) 이외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 홍보 비용 등 모두 3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국제포교를 염두에 둔 포교대책도 잇달아 마련되고 있다.

국제포교사회(회장 백원기)는 이를 근거로 영문 <사찰문화 안내서>를 발간해 사찰과 관련기관에 배포했으며, 총무원은 이달말까지 종단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해 외국인을 위한 사이버 포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원과 총무원 사회부는 월드컵이 국제포교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란 판단 아래, '국가별 불교 현황 및 포교현황' 조사에 나서기로 하고, 130여 해외 사찰과 국제포교사들에게 현황자료와 관련사진을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2 · 4 · 16면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모범수형자 1,232명 가석방

부처님 오신날 맞아

법무부는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19일 김한상 전국의료보험노조 위원장 등 노조간부 7명을 포함, 모범수형자 1천232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무기수를 비롯, 10년 이상의 형을 복역중인 장기수형자 35명과 기능자격 취득자 및 기능대회 입상자 205명, 검정고시 합격자 44명 등이 포함됐다.

김원우 기자

이번주 봉축특집 36면 발행

기획특집: 한국불교를 말한다.
도법스님 특별대담 '참회 · 진리추구만이 갈길' 3면
한국불교 세계화 '해외포교 미룰 수 없다' 4면
한국불교 달라졌다 '외형신장 신도의식 성숙' 5면
각계 불자 '부처님 오신날에 쓰는 발원문' 7면
타종교인들 '불교가 좋은 이유' 9면
'붓다의 땅' 인도불교가 되살아 난다 13면
새연재:108사찰 생태기행… '숲이 사라지면' 15면
20개국 주한대사 템플 스테이 체험현장 16면
화보 '미소로 오신 부처님' 20면
IT업계 누비는 불자CEO들 23면
봉축동화 '아기 부처님과 도둑' 31면
월드컵 전야제 목어 35개 출현 34면

새 기획연재 108 사찰 생태기행

<사찰생태연구소>와 현대불교가 10년을 기약하고 '사찰생태조사'에 나섭니다. '사찰'을 둘러싼 생명의 신비를 통해, 사람과 자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떻게 '相生'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론 '생태적 이상향'이어야 할 사찰마저 망가져가는 모습을 확인해야 하는 가슴 아픈 순간도 맞겠지만,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현재의 사찰 생태를 세심하게 진단하고 '자연스러움'을 회복할 비전을 찾는 데 있습니다.

길잡이 김재일 소장은 '두레생태기행'을 이끈 경험과 식견으로 집필을 맡아, 사람의 자연 속으로 독자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여행도반들의 면면도 듬직합니다. 화가 이호신 씨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모습을 화폭에 담아줄 것이며, 이병인(밀양대 환경공학과), 박원규(충북대 산림학) 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의 시각도 지면을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2001년 12월 YTN 모범업체 선정 방영!!

세계 최대 지장보살 성지

중부권 최대의 미타사 가족납골공원

즉시안치 가능 (토목공사 100%완료)

백룡이 여의주를 안은 백룡희주형(白龍戲珠形) 명당!

뒤로는 가섭산의 오색비단장막이 동에는 좌청룡 서에는 우백호가 엎드려 지켜주고 앞에는 탁트인 임수에 여의주가 뚜렷해 옛부터 알려진 최고의 명당으로 현세는 부귀다자(富貴多子)하고 내세는 지상보살의 품안에서 영원히 안식 할 수있는 제일의 성지입니다.

매년 정기적인 합동제와 상시독경을 올립니다.
음력 입춘, 사월초파일, 칠월칠석, 백중, 동지날에 스님들이 직접 영혼들을 위해 합동제를 올려 왕생극락의 길로 안내하며 상시 독경으로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빌어 영가들의 천도를 빌어드립니다.

육도(六道)의 배치로 왕생극락을 빌어드립니다.
납골의 배치를 육도에 맞추어 안치함으로써 왕생극락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인근에 유명관광지가 소재합니다.
중부 및 내륙, 중앙고속도로와 청주 공항에 인접하여 서울에서 1시간여 거리에 있으며 충주호, 단양팔경, 월악산, 수안보온천 등의 관광지가 인근에 있습니다.

◁미타사전경

기본형

□오 열 : A형 - 영탑형
□높 이 : 2000 □안치수 : 10位
□바닥석 : 1150×1250×150

고급형

□오 열 : A형 - 부도형
□높 이 : 2000 □안치수 : 12位
□바닥석 : 1200×1400×180

장묘법의 개정에 따라 더 이상 매장묘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불자시행 : 대한불교조계종 미타사
□신 청 금 : 10만원 선착순
□신청계좌 : 농협 327-01-137435
□예 금 주 : 대한불교 조계종 미타사 (미계약시 신청금 전액즉시환불)

분 양 문 의
02)720-7007
02)419-1700
FAX 02)419-6670
Homepage: www.mitasa.co.kr